

경제·외교 망친 트럼프…취임 100일 지지율 ‘72년만에 최저’

WP 조사서 39%로 2개월새 6%P 하락…64% ‘관세’ 부정적
72% “단기간 경기침체 초래” 전망…이 중 51%는 공화당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그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현지시간) 잇따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 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지지율 45%보다

6%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다”며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42%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52%를 기록했다”고 복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만 첫 해 후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는 예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도 그대로 드러나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WP는 짚었다. 구체적인 정책 중에는 ‘최근의 주식시장 혼란’과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과 ‘외교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나마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노력을 ‘지나치다’고 했고, 연방 기관 폐쇄에 대해서도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72%는 트럼프 대통

령의 경제 정책이 단기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51%가 공화당원이었다. ‘의료 연구 연방 지원 삭감’(반대 77%),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 민권 폐지 시도’(반대 67%), ‘연방 교육부 폐지’(반대 66%),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석유·가스 시추 환경 규제 완화’(반대 61%),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 세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았다. CNN 방송이 조사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3월 조사보다 4%포인트,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 드와이

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1953~1961년 재임) 이후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정책 지지율도 지난달 초 조사 때보다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관리’는 9%포인트 하락한 35%,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진 35%였다.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5%포인트 내린 39%로 최저치를 찍었고,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도 역시 12월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진 52%를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은 정책은 ‘성별 정체성 및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으로 51%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이 27일(현지시간)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다하에 지역을 폭격하며 연기가 치솟는 모습. /연합뉴스

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또 공습

“휴전 협의의 노골적 위반 헤즈볼라 정밀 미사일 표적”

이스라엘이 2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또다시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하에 지역의 한 건물을 공습할 예정이라며 경보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 300m 밖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얼마 뒤 이스라엘군은 항공기를 띄워 표적으로 삼은 건물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정밀 미사일이 있는 테러 기지를 공습했다”며 “이곳에 미사일을 두는 것

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사전 경고를 발령하고 정밀 무기를 사용하는 등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노려 공격한 것은 작년 11월 헤즈볼라와 휴전한 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달 28일과 이달 1일 베이루트의 다하에 지역도 공습했다. 이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계속되는 이

스라엘의 공격은 어떤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휴전 합의를 중재했던 미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압박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이틀날부터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병행했다. 작년 9월에는 레바논 남부로 18년 만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 강도를 높이다가 같은 해 11월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병력을 철수한다는 합의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캐나다 집권 자유당 살린 트럼프?

오늘 총선…자유당 ‘경제통’ 카니 등장에 지지율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합병 의지 표명’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치러진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 자유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개월간 극적인 지지율 반전을 이뤘으며 집권 연장을 이룰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보수당이 막판 추격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 CBC 방송이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트랙커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26일 기준 42.5%로 보수당(38.7%)을 3.8%포인트 앞섰다. 두 정당에 이어 퀘벡지역에 기반을 둔 블록퀘벡당이 23%,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NDP)이 5%, 녹색당이 1% 지지율을 각각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유당이 단독으로 172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확보할 확률은 74%였으며, 단독 과반은 아니지만 최다 의석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은 17%로 예측됐다. 두 경우를 합산한 자유당의 총선 승리 확률은 91%를 나타냈다. 자유당은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다른 소수 야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정 운영해왔다. 올해 초만 해도 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차기 캐나다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 인기를 잃은 집권 자유당은 지난 1월 트뤼도 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보수당은 압도적 우세에서 열세로 전락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란 항구 폭발…최소 40명 사망·1000명 부상

50km 밖에서도 폭발음
컨테이너 2000개 불 타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스님,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간주(州) 당국은 전날 반다르압바스의 사히드라자이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중 2000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화재의 약 80%가 진압됐다고 밝혔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

며 인명 구조도 계속되고 있다. 호르무즈간 주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전날 오전 11시 55분께 사히드라자이항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AFP 통신 등 외신은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상당수가 심하게 파손됐다고 전했다. 사히드라자이항은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항구다. 연간 약 80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며 석유 탱크와 화학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폭발은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3차 핵협상을 시작한 날 발생했으나, 두 사건이 관련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